

-네요, -이네요/네요

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refer to what you have just realized. Often it expresses a speaker's surprise typically at an unexpected or counter-expected events or states.

- 어? 비가 오네요.
- 와,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!

※ '-네요, -이네요/네요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한국어를 잘하다 → _____.
2. 날씨가 생각보다 춥다 → _____.
3. 이거 너무 비싸다 → _____.
4.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다 → _____.
5. 밤에 눈이 왔다 → _____.
6. 여기가 아니다 → _____.
7. 벌써 12시이다 → _____.

※ '-네요, -이네요/네요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가 : 제가 찍은 사진 좀 볼래요?

나 : 와, 정말 잘 찍었네요. _____ (잘 찍었다)

1. 가 : 이거 어제 산 구두인데 어때요?

나 : _____, 어디에서 샀어요? (정말 예쁘다)

2. 가 : _____, 물 좀 주세요. (좀 맵다)

나 : 아, 그렇게 많이 매워요?

3. 선생님 : 어, 웬일로 _____, (성현 씨가 안 왔다)

학생 : 네,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했어요.

4. 가 : 이 음식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어때요?

나 : 와, _____, (요리를 잘하다)

5. 가 : 이 옷은 얼마예요?

나 : 잠깐만요... 와, _____, 너무 비싼데요? (50만 원이다)

6. 가 : 지난주에 종로로 이사했어요?

나 : 그래요? 그럼 우리 이제 같은 동네에 _____, (살다)



답

※ '-네요, -이네요/네요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한국어를 잘하네요.
2.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요.
3. 이거 너무 비싸네요.
4.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네요.
5. 밤에 눈이 왔네요.
6. 여기가 아니네요.
7. 벌써 12시네요.

※ '-네요, -이네요/네요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정말 예쁘네요.
2. 좀 맵네요.
3. 성현 씨가 안 왔네요.
4. 요리를 잘하네요.
5. 50만 원이네요.
6. 사네요.